

기든스(Giddens)의 성찰성 이론을 통한 임파워먼트의 재해석 -통합적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에 대한 탐색-

최 명 민⁺

(백석대학교)

김 기 덕⁺⁺

(순천향대학교)

[요 약]

역사 속에서 사회복지가 하나의 전문직으로 등장한 이래 거시와 미시이론, 구조와 주체, 근대주의와 탈근대주의 간 긴장과 갈등이라는 이론적, 실천적 이원화(dualism) 이슈들이 존재해 왔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 중 대표적인 생태체계론과 임파워먼트는 통합적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노력으로 사회복지 실천이론의 발달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보다 정교한 통합적 실천 패러다임으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보여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사회비판이론으로 등장한 기든스의 성찰성 이론이 통합적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 모색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사회과학의 고질적 논쟁인 개인-구조의 이원성에 대한 통합적 설명을 정교하게 제시하는 동시에 근대-탈근대 논쟁에 있어서도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되어 온 성찰성 이론은 사회복지의 이원화 이슈 극복에도 중요한 통찰력을 제시한다. 특히 성찰성으로 표현되는 인간주체의 능력에 대한 재발견과 이를 통한 비판적 사회복지실천의 가능성은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본질적 가치와 이념과도 적절히 부합하고 있어 임파워먼트를 발전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준다.

주제어: 통합적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 기든스(Giddens), 임파워먼트, 성찰성 이론, 구조화 이론, 성찰적 근대화

+ 주저자
++ 교신저자

1. 문제제기

1)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의 분절화

본 연구는 현재 사회복지실천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보다 논리적이고 정교한 통합적 패러다임의 정립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생태체계론이 사회복지 영역에 도입되면서 커다란 진전을 보였던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패러다임 구성은 이후 임파워먼트(empowerment)¹⁾가 등장하며 발전적인 논의를 촉발하였으나 현재는 이론적, 실천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의미 있는 기여를 해온 생태체계이론과 임파워먼트가 현대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패러다임이 요구하는 이론적 치밀함과 '통합'의 관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한계를 직시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론을 거쳐 임파워먼트까지 진행된 통합적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대안적 기제로 기든스의 '성찰성 이론'의 유용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성찰성 이론은 성찰성(reflexivity)²⁾을 핵심으로 구조화이론(structuration theory)이라는 순수이론과 이를 현실사회에 적용한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 이론, 그리고 이런 입장의 규범적 기초가 되는 유토피안 현실주의(utopian realism) 이론이 성찰성을 중심으로 상이한 차원들 간에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중 구조화 이론은 거시-미시 접근 간 단절, 구조-주체의 이원성이라는 사회복지의 전통적 논쟁을, 성찰적 근대화론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근대-탈근대 논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는 분석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패러다임으로서 기든스의 성찰성 이론이 가진 장점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그간 사회복지학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통합적 접근으로 인정되어온 생태체계이론과 비교를 시도한다. 그리고 이 생태체계를 기반으로 설명되고 있으면서 사회복지실천의 규범성과 정향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임파워먼트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여 기든스 이론이 가진 통합성을 논증할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사회복지가 전문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래 분절화(divide) 혹은 이원화로 상징되는 이론적, 실천적 논쟁이 첨예하게 전개되어 왔다(Specht and Courtney, 1994; Haynes, 1998; Gibelman, 1999; Kondrat, 2002; Pease, 2003; Brooks, 2008; Wheeler-Brooks, 2009). 이러한 분절화 논쟁의 핵심은 사회복지실천이 개인이나 가족과 같은 미시적

1) 사회복지에서 임파워먼트는 모델, 이론, 접근, 또는 패러다임으로 등으로 지칭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편의상 이를 통칭하여 '임파워먼트'로 표기한다.

2) 성찰성, 혹은 재귀성이라고 번역되는 reflexivity는 기든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어가 아니라 고전사회학의 전통으로부터 기든스로 이어진 역사적 존재로서 다양한 사회학 이론의 중심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김상준, 2005).

주체의 문제해결과 기능향상에 주력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사회(general society)를 대상으로 거시적 차원의 구조변화와 개선을 도모해야 하는지 여부이다(NASW, 2003). 물론 사회복지의 대상이자 존재 근거인 사회가 개인과 구조라는 두 가지 실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기능 및 구조의 본질과 역할, 특히 자아와 사회 간의 관계는 서로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때로는 대립적인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러한 대립은 사회복지실천의 본질 규정 및 실천 활동의 유형과 관련해 명백한 분기를 초래해 왔다(Pease, 2003; Wheeler-Brooks, 2009). 이러한 전통적 분절화 논쟁에 더해 최근에는 사회복지를 둘러싼 근대와 탈근대 논쟁과 중첩되며 더욱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분절화 논쟁의 핵심에는 현재 사회복지실천이 근대화(modernism)의 산물로 사회복지의 고유 이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사회복지실천을 해체하고 탈근대적(postmodern) 전망을 가진 사회복지실천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가 놓여 있다(Pozatek, 1994; Atherton and Kathleen, 2002; Hugman, 2003).

이와 같은 사회복지실천의 분절화 혹은 이원화 현상이 사회복지 발전과정에서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논쟁의 혼란은 전문가의 역할, 실천지식의 본질, 전문직 관계와 같이 사회복지 실천의 사명에서부터 실천이론, 실천전략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걸쳐 있는 것으로서 사회복지 실천의 존재이유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 기든스(Giddens)의 성찰성 이론의 분절화 통합 가능성

이러한 배경에서 구조와 개인, 자아와 사회, 근대와 탈근대의 분절화를 통합적으로 극복하려는 사회복지연구자들에게 기든스가 제시하는 사회이론은 매력적인 패러다임으로 다가온다. 하버마스, 푸코와 더불어 당대의 사회이론가로 평가받고 있는 기든스(김호기, 2001: 98)의 논리는 한 마디로 개인과 구조의 통합적 설명, 근대와 탈근대 논쟁의 극복, 전통과 근대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요약될 수 있다(오경석, 2004; 김운태, 2006; 2007; 임운택, 2006; Miri, 2009). 뿐만 아니라 성찰성(reflexivity)으로 표현되는 인간주체의 수행능력에 대한 재발견과 이를 통한 비판적인 사회적 실천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이념과도 상당한 친밀성을 보인다(Kondrat, 2002; Ferguson, 2004).

사실 기든스 이론이 가진 통합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잠재력과 함의는 20세기 후반부터 사회과학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나 사회복지 특히 사회복지실천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Ferguson, 2004; Webb, 2006; Gray, 2008).³⁾ 이렇게 도입이 지연된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든스 이론이 가진 방대함과 추상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회복지 실천분야에 쉽게 활용되기 힘들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에 소개된 기든스 이론이 주로

3) 한국 사회복지학계는 그 지연 정도가 더욱 심하여 제3의 길 논쟁이나 사회투자국가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든스 이론을 언급한 연구들을 제외하고 기든스를 통해 사회복지를 본격적으로 조망한 연구로는 이혁구(1999), 조성우(2006), 황보람(2009) 정도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그의 성찰성 이론이 가진 사회복지 전반, 혹은 정책 및 실천에 대한 함의를 논구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사회복지실천이론, 즉 임파워먼트나 생태체계론에 관한 것은 아니다.

‘제3의 길’로 불리는 정치이론과 ‘사회투자국가’로 상징되는 복지국가 개편론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기든스의 정치전략은 전통적 복지국가 옹호론자들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왔고(Garrett, 2003) 이런 점이 사회복지실천에서 기든스 이론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Wheeler-Brooks, 2009: 138). 하지만 구조와 개인의 관계를 근대화 논쟁과 관련해 통합적으로 설명하려는 기든스 이론의 전반적 구조와 더불어 핵심 개념인 주체의 수행(performance), 성찰성, 친밀성(intimacy), 생활정치(life politics)와 해방정치(emancipatory politics) 등이 사회복지실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Taylor and White, 2000; Fook, 2004; Webb, 2006).

이러한 이론적 논쟁과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사회복지 실천분야가 기든스의 성찰적 근대화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영역이라고 전제한다. 특히 현 시점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근간을 이루는 임파워먼트는 기든스 이론체계의 통합적 설명력을 검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많은 선행 연구들이 증명하듯 임파워먼트는 단순히 사회복지 실천전략으로 제한된 개별 이론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논리적 이해와 윤리적 전망 그리고 실천이론이 통합된 형태로 존재한다(김인숙·우국희, 2002; 정순돌 외, 2007). 따라서 임파워먼트는 개별 이론을 넘어서는 하나의 관점인 기든스의 사회이론이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으로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임파워먼트 개념 자체가 개인과 구조의 분기, 근대와 탈근대 논의의 분절에 따른 상이한 역할과 전망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있다는 점이다(Baistow, 1995; Pease, 2002; Askheim, 2003). 이는 분절화를 극복하는 통합적 사회이론으로서 기든스 이론의 가능성과 한계를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셋째, 임파워먼트는 현재까지 사회복지실천의 통합모델로서 가장 진전된 형태이면서도 사회복지실천의 이중초점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과학의 이론을 수용하여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박시중, 2001).

3) 논문의 구성과 내용

성찰성 이론으로 임파워먼트를 재해석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패러다임을 모색해 보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접근을 시도한다. 먼저 사회복지실천분야에서 전개되었던 통합적 실천의 노력을 생태체계론과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생태체계론과 임파워먼트가 가진 통합적 패러다임으로서의 한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든스의 성찰적 이론의 도입 배경이 된다. 무엇보다 기든스의 이론체계가 개별적 사회이론들의 병렬적 모임이 아니라 분석이론과 철학이론 그리고 실천이론이 통합되어 구조화된 하나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핵심 쟁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 실천의 위한 통합적 패러다임이 기든스의 성찰성 이론으로 충분히 모색될 수 있는가의 여부이고 이는 임파워먼트의 재해석을 통해 구명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든스의 구조화론이 인간주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주체의 성찰성은 어떻게 정립되는지를 검토하고 이 논의가 사회복지 실천의 전통적 분기인 구조와 개인의 이분

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분석된다. 이어서 성찰적 근대화론을 통해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극복을 지향하는 기든스의 논의가 어떻게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시대성 논쟁을 해소할 수 있을지도 검토된다. 이를 통해 임파워된 성찰적 주체가 현실사회에서 자신의 성찰성을 구현하는 과정에 필요한 조건과 토대들에 대한 논의들과 아울러 기든스의 성찰적 근대화론과 임파워먼트의 만남을 통해 구성된 통합적 사회복지실천에 요구되는 전문직 교육의 내용과 역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성찰성에 대한 전망도 언급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내용적 수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비록 본 연구의 궁극적 지향이 사회복지실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도 연구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회복지 실천활동과 전략을 주로 다루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초점은 사회복지실천이 가진 사회이론적 입장, 규범적 정향, 분석의 개념틀 등과 같은 패러다임 차원에 있다(Guba, 1990).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체계이론과 임파워먼트가 가진 실천 패러다임적 성격에 대해 논의를 집중하고자 하였다.

2. 통합적 패러다임을 향한 사회복지실천의 여정(旅程)

사회복지실천의 이론적 발달과정은 미시와 거시, 기능과 구조의 이원구도를 논리적으로 통합하여 사회복지실천에 내재한 고유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정응적인 개인의 교화와 치유에 초점을 두었던 자선조직협회와, 지역주민의 자생력과 연대를 강화하고자 했던 인보관운동이라는 두 가지 갈래에서 시작된 사회복지실천은 이후에도 개인기능과 사회구조의 이원화된 궤도를 그리며 발전해 왔다(양옥경 외, 2010). 그러나 개입대상과 실천방법이 점차 세분화되고 관련된 이론과 관점이 다양해지면서 과연 개인과 구조 모두를 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하여 연결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1) 생태체계론의 기여와 한계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층위의 대상들을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메타 패러다임으로서 생태체계관점의 출현은 사회복지실천의 화두인 다양한 대상과 방법론의 통합이라는 지난한 과제를 해결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생태체계관점은 흩어져 있던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하나로 묶어주는 개념적 기반이 되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⁴⁾ 각 대상과 위계에 따라 필요한 이론이나 모델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충의 틀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이는 사회복지의 통합적 방법론으로 이어져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면서 타전문직과의 차별성을 보다 뚜렷이 해주었다. 그러나 생태체계관점은 그 기여에 못지않게 상당한 비판 또한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4) 일반주의 사회복지사(generalist)에 대한 논리적 기초를 제시한 것이나 사례관리(case management)의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의 기본이자 핵심 단위인 인간 주체에 대한 인식과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인간존엄성을 기본으로, 인간에 의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 중심의 실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실천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관점이나 이론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실천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생태체계론은 인간을 환경에 속한 존재로서 더 큰 사회환경과 교류하는 개방적 유기체로 간주하여 인간과 물리적, 사회적 환경 간의 적응을 중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이 고유한 삶의 주체로서 어떤 심리적 기제나 의지, 또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Kondrat, 2002).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고유한 역할이나 클라이언트⁵⁾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제한을 가져와서 사회복지사를 변화매개체로 규정할 뿐, 사회복지사의 덕목,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방향 등을 내용적으로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점은 생태체계론이 가진 추상성과 불확실성, 논리적 연결성 부족, 과도한 포괄성 및 일반화와 더불어 사회복지 전문직의 일관성을 성취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Wakefield, 1996a; 1996b).

둘째, 생태체계론에 대한 가장 핵심적 비판은 이 이론이 다양한 사회체계들을 함께 고려하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개념화하고는 있지만, 그 논리적 연결이 추상적이고 기계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와 같은 단위 체계들을 마치 큰 인형을 열면 더 작은 인형들이 들어있는 중국 인형과 유사한 층위로 제시하고 있다(Kondrat, 2002). 따라서 이들이 에너지의 교류를 통해 상호작용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간에 에너지 교류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Wakefield, 1996a; 1996b). 이렇듯 생태체계론은 이론으로서의 내용적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에서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왜 해야 할지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서진환 외 역, 2001: 251).

결국 생태체계관점은 총체적 시야를 확보하는 데에는 기여하였지만 이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사유하고 어떤 역사성이나 방향성을 갖고 실천적으로 접근하는 틀로서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시 말해 생태체계론은 가장 미시적인 인간체계과 그 내면에 대한 설명도, 보다 큰 사회환경으로서 거시적 권력체계의 역동도,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도 충실히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으로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고 하겠다.

2) 임파워먼트의 기여와 한계

임파워먼트는 생태체계관점이 가진 통합적 가능성을 견지하면서도 그 내재적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새로운 접근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임파워먼트는 완전히 새로운 실체라기보다는

5) 클라이언트가 갖는 수동적인 수혜자의 부정적 의미를 탈피하고자 서비스이용자, 소비자 등의 개념들이 사용되지만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의 전형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클라이언트의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생태체계 관점 위에서 사회복지에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던 강점중심의 접근이 재부상한 것으로 주로 이해된다(양옥경·김미옥, 1999). 다시 말해 임파워먼트는 중립적인 자연과학적 논리가 중심이 된 생태체계론에 인간적 온기를 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생태체계론이 인간을 체계의 일부로 간주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궁극적으로 에너지 교류로 환원하는 기계적 논리를 갖고 있다면, 임파워먼트는 인간을 각기 고유한 감정, 생각, 목표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 보며, 권력이 작동하는 체계와 관계 속에서 억압받고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더 나은 환경을 창출해 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는 것으로 바라본다. 그런 측면에서 임파워먼트는 생태체계론과 마찬가지로 미시에서 거시에 이르는 체계들을 아우르면서도 인간을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자기 삶과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존재로 설명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에 기반한 지향점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최명민 역,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파워먼트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이슈들이 남아있다.

우선 임파워먼트는 외부환경을 이해함에 있어 생태체계론과 달리 권력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부각시켜 이를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변화의 기제로 클라이언트의 의식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실제로 인간주체가 어떻게 의식화(consciousness-raising)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구조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Kondrat, 2002). 이러한 설명의 부족은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성찰성을 확보하며 클라이언트의 성찰성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적절한 논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져온다.

또한 임파워먼트에서는 사회환경과 구조를 억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관계를 권력의 균형과 불균형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간이 활용하고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구조의 긍정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간과해 왔다는 비판도 있다(Wheeler -Brooks, 2009). 이 경우 구조는 좀처럼 변화되기 어려운 대상으로 인식되며, 인간주체와 사회구조의 이분법은 더욱 고착될 수 있고 바로 이로 말미암아 사회구조의 변화를 향한 노력은 오히려 위축되기도 한다. 따라서 임파워먼트의 철학은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더 초점을 두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미시적 임파워먼트에 더 치중하게 되는 괴리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박시중, 2001; 양옥경·최명민, 2006; Skehill, 1999).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임파워먼트를 둘러싼 근대와 탈근대적 입장 차이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즉 근대주의는 진정한 임파워먼트를 위해서는 지배담론의 억압적 서사를 재구조화하고 해방 전략을 재창조하기 위한 실천적 지침을 제시하는 강경한 비판주의의 입장을 보인다(Stepney, 2006). 반면 탈근대적 입장에서는 임파워먼트 논리의 핵심인 파워 개념이 오히려 권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설정된 이분화된 구조를 통해 반(反)임파워먼트 효과를 초래하므로 전문적 실천에 내재된 권력의 개념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aese, 2002). 이렇듯 임파워먼트를 둘러싸고 전문가와 전문적 실천에 대해 근대와 탈근대의 상반된 주장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결국 임파워먼트는 생태체계관점의 한계를 일부 극복하면서 보다 발전된 사회복지실천의 철학과 개입방향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통합 사회복지실천의 이론적 패러다임으로는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기든스(Giddens)의 성찰적 근대화론에 대한 이해

1) 기든스 이론의 기본 구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기든스는 제3의 길로 상징되는 현실 개입 지향의 사회학자로만 한정될 수 없다. 기든스의 사상은 현재 알려진 몇 가지 사회학 이론과 정책적 전력만으로 결코 충분하게 설명될 수 없으며 그의 전공 영역인 사회학을 넘어 철학, 역사학은 물론 정치학과 경제학을 아우르는 비판사회이론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김호기, 2001: 4). 그렇다면 서구 사회학 이론을 아우르고 심리학과 철학, 민속방법론과 정신분석학 등을 통합하며 근대와 탈근대 논의를 넘나드는 그의 방대한 이론체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할까?

기든스의 이론체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하고 복잡해 보이는 그의 사상이 매우 일관된 체계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고전사회학에서 현대 사회학,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근대와 탈근대 논쟁을 가로지르며 현실정치의 방향과 전략까지 언급하는 방대한 기든스의 사상체계는 세 가지 다른 차원의 논의가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다양한 주제와 영역으로 변주되고 있다. 이 세 차원이 바로 순수이론인 구조화 이론, 현실사회 분석이론인 성찰적 근대화 이론 그리고 이들 이론들의 이념적 근거로서 유토피안 현실주의이다(김윤태, 2007)⁶⁾. 그리고 이 세 이론은 독립적이거나 병렬적인 것이 아니라 성찰성 개념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다.

현대사회의 성격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행동의 본질을 성찰성이라고 파악한 기든스는 순수이론 차원에서 인간주체와 사회구조의 관계를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기든스는 주체와 구조의 관계를 다루는 기존 사회이론인 자원론(voluntarism)과 구조결정론, 다시 말해 주체주의와 구조주의를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구조화이론이라는 독창적인 논리를 정립한다. 그런 다음 그는 구조화이론에 기반을 두고 본격적으로 현대사회의 성격을 해명하고, 현대성에 대한 거시적 설명과 미시적 해석은 성찰적 근대화 논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통합한다. 인간주체의 성찰성에 상대적으로 더욱 주목함으로써 현실적 맥락을 간과하는 낙관주의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그의 비판이론은 철학적 기초인 유토피안 리얼리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만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 기든스에게 있어 모더니즘의 과도한 규범주의

6) 많은 경우 기든스의 사상체계를 분류하면서 유토피안 현실주의 대신 제3의 길을 들기도 한다(김호기, 2001: 98). 그러나 제3의 길에 담긴 내용은 구조화이론과 현대성 담론의 논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 구체적 정책대안의 성격이 많다고 볼 수 있어 그의 사상과 이론체계의 핵심 근거로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구조화와 현대성 논의의 철학적, 이념적 기반을 이루는 유토피안 리얼리즘이 비판이론가로서의 기든스의 사상과 구조화 및 현대성 논의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더욱 필수적이라고 보아야 한다(김윤태, 2006: 2007). 사회복지실천에 적절한 패러다임으로서 기든스 사상의 비판적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이 논문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3의 길과 같은 실천전략보다는 기든스의 근본적인 지향을 살펴볼 수 있는 유토피안 리얼리즘의 검토가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부정부주의를 동시에 비판하는 핵심 도구가 바로 성찰성(Giddens, 1994)이며 이러한 성찰성에 대한 믿음과 현실적 제약의 이념적 기초가 유토피안 리얼리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든스의 사상은 단순히 사회학 이론을 넘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총체적 분석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틀은 성찰성 개념을 중심으로 구조화론, 성찰적 근대화이론 그리고 유토피안 리얼리즘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 주체와 구조의 통합으로서의 구조화 이론

(1) 주체와 구조의 통합적 설명

현대사회의 성격을 해명하려는 기든스 이론의 출발은 너무나 당연하게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범주인 인간행동과 사회구조의 관계에서 시작한다. 그는 인간과 사회구조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존의 자원론과 구조결정론의 한계를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구조화(structuration)이론을 제시한다.

기든스가 지적하는 자원론과 구조결정론의 공통적 문제점은 이들이 행위주체인 인간과 사회체계인 구조 간의 긴밀한 연계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들을 완전히 분절된 존재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원론은 상징적 상호작용과 해석학적 분석을 통해 인간 행위의 의미와 상호작용에 대한 미시적 설명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의미와 상호작용의 조건이자 제약인 구조에 대한 논의는 담고 있지 못하다. 반면 구조 결정론은 인간행위에 작용하는 구조의 제약은 적절히 인식하고 있으나 구조를 인간 외부에 정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구조와 행위의 역동적인 관계를 포착하지 못한다(Giddens, 1979). 결국 기든스의 비판점은 자원론과 구조결정론 둘 다 인간과 구조를 연결하는 적절한 개념범주 설정에 실패하여 실천과 구조변동의 역동성을 포착하지 못한 채 인간과 구조 중 하나만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원론과 구조결정론을 극복하면서 인간행동과 사회구조 간의 역동적 상호관계를 포착하기 위해 기든스가 독창적으로 창안한 개념이 바로 '주체의 성찰성'과 '구조의 이원성'이다(Giddens, 1979; 1984). 이 개념들이 설정됨으로써 이제 주체와 구조는 서로 긴밀하게 이론적으로 결합된다. 먼저 구조의 이중성(duality)이란 기존의 구조주의 이론과 달리 구조가 정태적으로 주체 외부에 설정되어 제약과 억압의 조건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수행하는 실천의 매개이자 동시에 결과로서 이중성을 보인다는 것이다(Giddens, 1984: 74). 그리고 실천의 매개이자 결과인 구조의 역동성은 구조를 인간의 역동적 실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규칙(rule)과 자원(resource)으로 재규정한다. 따라서 규칙과 자원인 구조는 인간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지식의 토대인 기억과 행동으로 실증되어 존재한다(Giddens, 1984: 377).

이러한 구조의 이중성은 실천의 주체로서 인간이 가지는 행위의 자율성, 즉 성찰적 감시(reflexive monitoring) 능력과 조응한다. 성찰적 감시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행위주체인 인간은 구조에 종속되어 주어진 역할을 수행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사회적 규칙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

여 현재의 관행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수행할 수 있는 존재이며 이러한 실천(practice)의 결과로 구조를 재조직해 나간다.

이같이 인간실천의 매개이자 결과인 구조의 이중성이 인간의 성찰성이 가진 자율성 및 실천능력과 결합되어 사회적 관계를 역동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것이 바로 '구조화'이론이다(Giddens, 1984: 476). 결국 구조화이론의 주요과제는 인간의 수행이 특정한 시-공간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구조화되어 가며 동시에 구조화되어진 사회체계나 제도가 어떻게 수행에 대한 제약과 가능성을 열어주는지를 다루는 것이다(조성우, 2006: 25)

(2) 주체의 성찰적 수행과 구조변동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든스가 생각하는 인간은 성찰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능동적 주체이다. 따라서 구조화이론의 관심의 초점은 바로 인간주체가 수행하는 실천이며 이러한 실천의 중심에는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특정 상황에 따라 적합한 지식과 자원을 결합하여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의 성찰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주체의 성찰성은 어떻게 작동하여 구조변동을 야기하는 것일까?

기든스에 의하면 인간행동의 성찰성이 작동하는 곳은 담론의식과 실천의식이다(Giddens, 1984). 담론의식(discursive consciousness)이 주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스스로의 행동을 설명하고 타당성을 부여하는 영역이라면 실천의식(practical consciousness)은 주로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영역이다.⁷⁾ 사회구조 속에 존재하는 인간주체는 많은 경우 실천의식에 의해 형성되고 작동되는 관행적 실천(social practice)을 수행한다. 하지만 담론의식을 통해 작동하는 주체의 성찰성은 반복되는 실천과 달리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그 관행적 실천이 문제에 직면하는 위기상황에서는 성찰성이 더 크게 작동하게 된다. 이 때 주어진 상황을 명시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담론의식이 작동하고 이 담론의식은 구조 내 자원과 결합하여 기존 구조의 영향을 넘어 새로운 구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즉 기든스가 주목하는 것은 주어진 구조 속에서 관행적 실천을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자기행동을 결정해 가는 인간의 성찰적 능력이다.

2)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극복으로서의 성찰적 근대화 이론

(1) 성찰적 근대화와 새로운 희망과 불안

구조화 이론을 통해 주체와 구조의 관계를 정립한 기든스는 이를 토대로 현대사회의 성격을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한다(Giddens, 1990). 그는 현대사회를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로 규

7) 기든스는 인간의 자아를 담론의식, 실천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하는 세 가지 모습으로 구성한다. 하지만 구조와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주체로는 주로 실천의식과 담론의식을 논의하고 무의식은 인간행동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규정한다(Giddens, 1979). 인간주체의 능동적이고 의식적 실천에 주목하는 기든스는 무의식의 역할과 영향력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정한다. 성찰적 근대화 역시 근대화의 연장선에 있기에 전통사회의 봉건적 요소를 탈전통화시켜 억압과 관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근대성의 기본 전제는 여전히 유효하게 받아들인다.⁸⁾ 하지만 기든스가 규정하는 근대는 마르크스나 파슨스 혹은 하버마스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근대화(simple modernization)가 아니라 성찰성의 확장을 특징으로 하는 후기(late) 혹은 급진적(radicalized) 근대화이다(Bryant and Jary, 1991).⁹⁾ 그렇다면 단순 근대화와 구별되는 성찰적 근대화는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

기든스는 18세기 이후 계몽주의를 기치로 전통사회를 탈전통화시켜 나가며 본격화되기 시작한 근대화는 20세기에 접어들어 다음과 같이 새로운 변화양상과 구조변동을 보인다고 평가한다.

첫째, 기든스는 근대화의 진행이 전통적인 근대주의 비판이론가들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보편적 단계를 밟아 연속적이고 진화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이고 다원적인 방식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Giddens, 1990: 20-22). 과학기술의 발달로 촉발된 지구화는 인류사회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크게 변화시켰고 이는 세계의 상호의존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사회의 다양한 기능분화를 통해 하위체계의 의미 분화를 가져왔다(Giddens, 1994). 그 결과 근대주의가 전망했던 것과 같이 합리적 이성애 근거한 유일하고 보편적인 진리에 의해 달성될 것으로 보였던 인간해방과 자아실현은 커다란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세계화가 강화되고 전통적 규범이 소멸되는 동시에 보편적 지식의 토대마저 무너지면서 개인과 집단은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과 자아를 형성하는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갖는 동시에 신뢰할 만한 적절한 전문 지식의 획득에는 어려움을 겪는 자아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Giddens, 1991: 304-320).

둘째, 근대화의 심화로 진행되는 사회적 삶의 조건과 자연에 대한 인위적 개입은 전통사회와는 다른 위험들을 만들어 내는데 이 위험의 본질은 인간의 이성적 개입이 증가할수록 인위적 불확실성(manufactured uncertainty)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위험에 대한 대처는 기존의 근대성이 지향하는 보편적이고 확고한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며 전통적인 상징체계와 전문가 체계의 역할은 점차 약화된다. 이제 엄격한 이성적 추론에 의해 규명된 인과관계에 따라 적용되던 단일하고 일관된 전문 지식 체계는 있을 수 없으며, 변화하는 환경에서 다원화되어 가는 개인들의 자아실현에 요구되는 확실한 정보는 부족해진다.

이와 같이 기든스가 생각하는 근대는 이중성을 가진 근대 즉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근대이다. 이러한 희망과 불안은 신뢰와 위험이라는 동전의 양면이다. 근대화가 진전됨에 따라 개인의 자아와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성찰의 기회는 점점 커져가지만 동시에 개인들이 자신의 미시적 삶과 관련된 구체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은 점점 불확실해진다. 이는 근본적으로 근대화 초기에 주어졌던 상징체계와 전문가 체계가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과 관련해 확실한 지식과 앎을 점점 더 제공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8) 이런 맥락에서 Giddens는 최후의 근대주의자(the last modernist)로 불린다(Mestrovic, 1998).

9) 실제로 기든스는 자신의 근대성 이론을 구축하는 출발을 대표적인 근대적 비판이론의 원류가 되는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다(Giddens, 1981: 1985).

(2) 성찰적 근대화를 통한 근대와 탈근대의 극복

근대적 이성의 보편적 적용이 한계에 직면한 후기 근대화사회에서는 근대적 기획을 전면적으로 포기하고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탈근대적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기든스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는 근대 해방전략이 위기에 처하고는 있으나 탈근대적 실천전략을 채택하기보다 여전히 근대적 전략 속에서 전망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첫째, 성찰적 근대화의 시기에도 여전히 근대적 기획이 가진 탈전통과 해방의 정치는 요구된다. 집단적 제도 변혁을 추구하는 해방의 정치가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추구에 미흡하다 할지라도 이를 포기하면 팽배해진 성찰에 대한 기회를 감당하지 못한 개인이나 집단들이 불안을 견디지 못해 근본주의나 복고주의로 회귀하여 전통으로 복귀하려는 충동을 가질지 모른다(Giddens, 1991). 이런 접이야말로 실제 근대화가 진전되어 성찰적 근대화로 접어든 사회에서 종종 근본주의나 봉건적 관습 등이 나타나거나 다시 팽배하는 이유이다.

둘째, 기든스는 후기 근대사회에서 개인들이 겪는 자아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자아의 성찰적 기획과 함께 생활정치(life politics)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자아의 성찰적 기획이란 자아의 형성을 개인적, 사회적 변화에 관련된 성찰적 과정의 한 부분으로 탐구하는 것이고, 생활정치란 자아의 성찰성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슈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정치를 지칭한다(김호기, 2001: 109). 그런데 자아의 성찰성과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의 행위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법이 바로 정의, 평등, 참여, 대화 민주주의 등 소위 근대 해방정치의 기획이다. 즉 성찰적 근대화는 불평등에 대응하는 해방정치와 자아실현에 대응하는 생활정치를 양축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호기, 2001: 111). 결국 기든스가 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근대성은 과거의 해방적 잠재력만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의 성찰적 힘을 통해 근대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때 이룩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기든스가 주장하는 새로운 근대성이 성찰적 근대성(reflexive modernity)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근대의 규범주의와 집합적 이성으로서 지식이 한계를 갖기 때문에 개인의 성찰성이 요구되는 성찰적 근대 사회는 성찰성이 부각되긴 하지만 탈현대가 아니라 여전히 현대의 내부에 속한다. 근대와 탈근대 논쟁은 성찰적 근대성으로 극복될 수 있다. 이성과 합리성에 의지하는 거대하고 보편적인 전문적 지식이 지배하는 단순 근대성의 시대와 인간의 성찰적 능력을 원리로 삼는 새로운 근대성, 즉 성찰적 근대성의 시대를 구별하는 것을 기든스의 기획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근대성이 가진 암울한 결과를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결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하상복, 2006: 142).

3) 현실과 이상의 종합으로서의 유토피아적 현실주의

(1) 유토피아적 현실주의의 의미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든스의 사상이 비판이론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면 그의 사상 속에는 그가

지향하는 이념적 목표와 방법론이 담겨있을 수밖에 없다. 그는 현대성이 노정하고 있는 위기와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대안적 정치철학으로 유토피안 현실주의(utopian realism)를 제시하였다(Giddens, 1990). 유토피안 현실주의란 현실적 조건이나 실현가능성에 근거하여 유토피아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Giddens, 1994: 249). 그렇다면 기든스가 제시하는 유토피안 현실주의에서 유토피안적인 것은 무엇이며 현실적인 것은 무엇인가?¹⁰⁾

기든스가 말하는 유토피안적인 것으로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따르는 비판이론들이 추구하는 해방정치(emancipatory politics)를 들 수 있다. 해방정치는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착취, 억압,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관계나 제도를 극복하려는 집단적 노력을 의미한다(Giddens, 1991: 210-214). 하지만 이러한 해방정치 전략은 근대 초기에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새로운 성격의 위험이 팽배하는 동시에 개인적, 사회적 성찰성이 확대되는 후기 현대사회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즉 해방정치의 기획이 후기 현대사회의 변화하는 조건과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전통적 해방정치가 지향하는 유토피안주의는 문자 그대로 유토피안주의에 그치고 말 것이다. 기든스의 설명에 의하면 근대 초기의 해방정치가 추구하던 기획은 이제 성찰적 근대화시기에는 실현이 불투명한 비판적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판적 현실주의가 다시 유토피안적 희망을 가지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해 기든스는 현대 비판이론은 포스트마르크스주의여야 하며 과거 유토피아주의가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실주의와 결합해야 하는데 그 현실이야말로 변화된 후기근대성에서 확인되는 개인과 사회의 성찰성이라고 답하고 있다.

(2) 성찰적 근대화 사회와 유토피안 현실주의의 전망

기든스는 자신이 제안한 유토피안적 현실주의가 그런 전망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속에 새롭고 독창적인 전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것이 바로 성찰성이라고 믿는다. 그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고유한 견해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이 의도한 바를 전적으로 수행하진 못하지만 지속적 성찰을 통해 지식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이고, 사회 역시 시간과 공간의 재구조화를 통해 다양한 하위체계들로 분화하며 상호작용과 통합을 필요로 하는 성찰적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고 전망한다. 그렇다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러한 기든스의 철학적, 이념적 전망이 현실적 비판주의를 넘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성찰적 현대사회의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은 무엇일까?

성찰적 근대화시대의 비판이론이 담아야 할 현실성은 한마디로 후기 현대사회에서 탈전통화와 지구화로 강화된 개인의 성찰적 가능성이다. 행위자의 선택가능성 증가로 인해 강화된 성찰성에는 자기존재의 사회적 조건을 반성하고 그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기 현대사회의 비판이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방정치를 통한 억압적 제도의 해방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선택 확대를 통해 자아정체성과 자아실현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증가된 개인화와 강화된 성찰성의 영향으로 확대된 하부정치를 활성화하면서 자아실현에 초심에

10) 유토피아는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되지 않은 인간적인 희망에 내용에 대한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사회상을 선취하여 보여주는 예지적 기능, 기존현실에 대한 비판적 기능,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역동성과 변혁적 의식을 고취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손성철, 2002: 203-204).

둔 생활정치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손철성, 2002: 221-223). 예컨대 과거 전통적 해방정치에서는 깊이 고려되지 않았던 개인의 정체성 형성, 가족구성원의 정체성 형성, 권력분석과 민주성에 대한 고민 등이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든스가 취하고 있는 유토피안 현실주의는 한마디로 해방정치와 생활정치
의 결합으로 볼 수 있으며 달리 표현하자면 현대사회의 구조적 비관주의와 성찰성으로 표현되는 행위
자의 낙관주의에 대한 그의 이념적 전망이 적절히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윤태, 2007: 51).

4. 기든스(Giddens)의 성찰적 근대화론과 임파워먼트의 만남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통합적 패러다임으로서 생태체계론은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임파워먼트
는 이념적 주장은 있으나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 대안으로 앞
서 살펴본 기든스의 성찰성 이론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성찰성 이론이 사회복지실천에 제공할 수 있
는 함의를 성찰적 존재로서 인간주체론의 확립, 미시-거시 실천의 통합적 구도 제시, 근대와 탈근대
이분법 극복을 통한 사회복지실천 방향의 제시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구조화론은 성찰적 존재인 인간 주체 및 그 수행과 긴밀히 연관되고, 성찰
적 근대화론은 성찰적 주체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 성찰적 존재로서 인간주체론 확립

임파워먼트에서 인간은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환경과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불균형한 사회구조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차
원에서 클라이언트는 자기 삶과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 간주된다(정순돌 외, 2007 : 60).
이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역량은 바로 의식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부당한 억압에 항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며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구조로부터 해방에 이를 수 있는 자유롭고 자율적인 존재가 된다(최명민 역, 2007 : 28).¹¹⁾
인간주체에 대한 이와 같은 묘사는 기든스의 성찰성 이론에서 바라보는 인간상과 거의 일치한다. 여
기서 중요한 점은 구조화이론을 중심으로 한 성찰성 이론이 바로 임파워먼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준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든스는 인간의 인식 또는 인지 구조를 무의식적 충동(unconsciousness
motives), 실천의식, 담론의식으로 구분하고 관습적 지식이 일상적인 실천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
면서 사회적으로 합리화된 행위(rationalized action)이자 상식(common sense)으로 작동하는 것을 일

11) 최명민 역(2007)에서는 임파워먼트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주제
와 같이 이러한 논의들을 성찰성 이론과 같은 체계적이고 단일한 패러다임으로 통합하여 설명하고
자 하는 노력은 관찰되지 않는다.

상적 지식(mutual knowledge)이라고 규정하였다(Giddens, 1984 : 4-7).¹²⁾ 이와 같은 논리는 전통적인 정신분석학의 인간의 심리구조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인식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정신분석학의 의식구조에 대한 지형적 분류를 넘어서서, 인간이 어떻게 타인과 공유된 일상을 영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각을 통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단하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임파워먼트실천의 핵심 요소인 '의식화'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모순을 인지하고 그런 현실 속의 억압적 요소들에 대항하여 행동을 취하는 법을 습득하는 것'으로 간주할 때(Freire, 1996 : 15), 기든스의 주장, 즉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실천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경우 성찰성을 통해 새로운 구조를 형성해 갈 수 있다는 구조화이론의 논리는 바로 그 의식화의 기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든스의 이론체계에 의하면 여기서 자아는 '성찰적 기획(reflexive project)'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임파워먼트를 위해 개입할 때 그 주요 지점은 인간의 자아, 그 중에서도 인간의 의식/지식이며, 특히 문제 상황 속에서도 자각이나 성찰 없이 이어오던 습관적이고 관행적이었던 개인의 실천인식이나 일상적 공동 인식이 그 주요 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준다. 그리고 이를 변화시키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습적 의식들을 담론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명시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제도적인 해방정치 뿐 아니라, 성찰성을 갖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선택하며 자신의 삶의 기회를 창출해 가는 개인들의 삶의 계획과 '생활정치'를 촉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김기덕 외, 2012 : 43-44).

그러나 성찰적 수행이 누구에게나 쉬운 과제는 아니다. 인간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관습에 따라 변화를 거부하기도 하고 새로운 선택에 대한 미지의 두려움으로 인해 부조리한 현 상황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을 극복하고 실천의식과 담론의식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새로운 선택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의 조성파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Burridge et al., 2010). 다음의 노숙자 지원센터 사례는 이러한 논지에 근거하여 인간의 성찰성이 갖는 의미와 교육적 개입이 인간의 성찰성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술과 때에 찌든 모습이 싫어 화장실 거울도 보기 싫었던 사람들. 영원히 공부와는 인연이 멀어 보였던 사람들... 서울역, 을지로 입구 지하철역, 서소문공원이 자신의 주소지였던 사람들. 처음 이 (인문학) 학교의 문을 두드린 사람들의 면면들이었다. 그리고 1년 뒤, 졸업생들은 이렇게 고백한다. "인문학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만든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울을 만들었다. 거울을 통해 이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들었다. 인문학이 나에게 준 건 깨지지 않는 거울 하나였다." "나는 이곳에서 배웠다. 인간이 무엇인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아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 내가 왜 가난하고 무시당하는가" (중략) 성공회 '다시서기센터'가 2005년 가을 문을 연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은 1년 동안 '배울 뜻 있는 노숙인'들에게 문학·철학·역사·예술·글쓰

12) 실천의식, 담론의식, 일상적 의식(consciousness)은 실천지식, 담론지식, 일상적 지식(knowledge)과 혼용하여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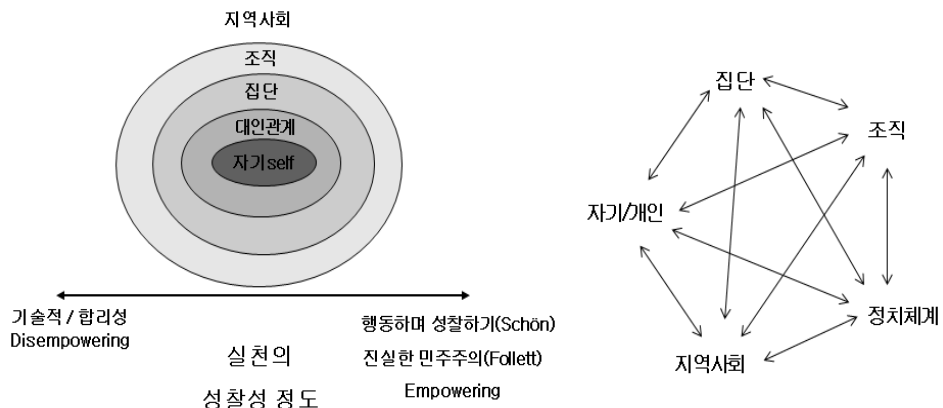
기 다섯 과목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중략) 난생처음 인문학을 공부하며, “내가 인간이라고 생각 하면 더욱 비참해진다”던 노숙인들은... ‘자존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한겨레 2012. 11. 16.일자 기사 “노숙자가 무슨 인문학을...당신의 편견, 깨졌습니다”)

이 사례는 일반적으로 성찰성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노숙인에게도 적절한 성찰의 기회가 주어진다 면 바람직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인간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결정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도 아니라는 기든스의 인간관은 사회복지의 실천적 개입에 더욱 의미를 부여해 주며(Kondrat, 2002), 아울러 이러한 성찰성을 강화하는 기제로 성찰적 환경 조성과 대화를 통한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 역시 분명히 제시해 준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성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화를 통해 성찰을 촉진하며 필요하다면 개인의 성찰을 서로 공유하게 함으로써 공동의 성찰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비판적 사고에 의한 대화 없이는 소통도 없고 소통 없이는 진정한 배움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Freire, 1996), 사회복지사에게는 비판 의식에 기초하여 대화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구조의 변화로 연결되는 부분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교육훈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2) 미시-거시 실천의 통합적 구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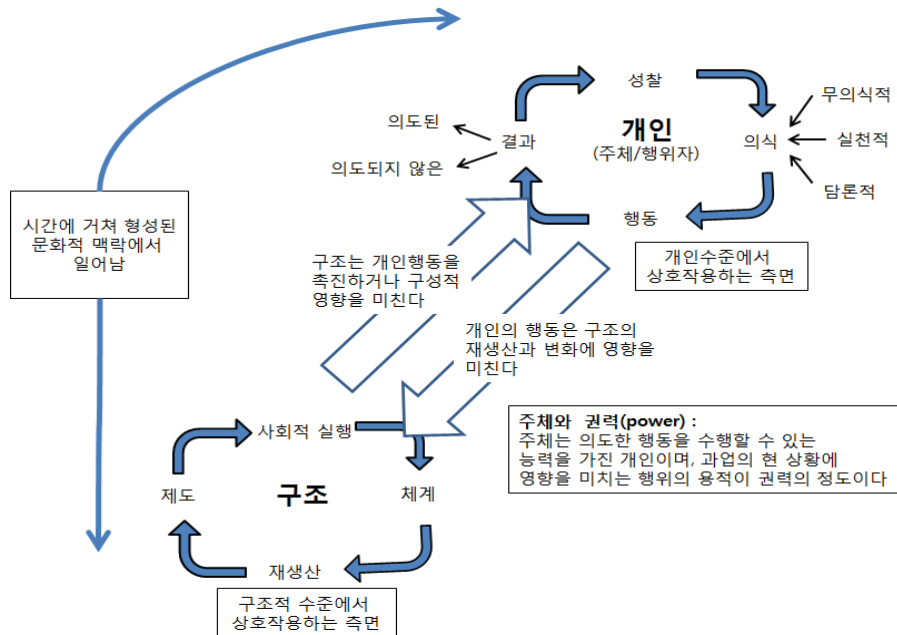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인간의 성찰성에 기초한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은 개인과 사회구조가 갖는 관계의 역 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임파워먼트를 더 정교화 할 뿐 아니라 그 실천방법 역시 보다 실질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다. 임파워먼트나 구조화 이론 모두 미시와 거시, 인간주체와 사회구조를 포괄하며 개인의 의식화를 통해 사회상황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액션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한 논리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림 1〉 임파워먼트의 영역 및 이들 간의 관계(출처 - Adams, 2008 : 76)

그러나 이들 간에는 체계들 간 관계를 인식하는 측면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존재한다. <그림 1>의 체계들의 구조도에서 보듯이 임파워먼트에서는 생태체계관점과 마찬가지로 하위체계가 상위체계 속에 속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하위체계가 상위체계의 규제 또는 억압을 받는 관계가 중심이 되므로 하위체계의 입장에서 이러한 주된 흐름을 역행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도가 되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각 단위 체계들 간의 관계는 상호적인 교류가 전제되어 있기는 하나 이들 간의 교류나 영향이 어떤 내용인지, 또는 어떤 역동으로 진행되는지를 설명하지 못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파워먼트는 상위체계의 통제가 억압적이고 불합리할 경우 사회행동을 통해 이에 대한 변화를 시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김혜란 외 역, 2006). 그러나 임파워먼트는 이러한 당위성을 실천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파워먼트의 논리는 추상적이고 수사적이어서 결국 임파워먼트를 목표로 한 개입을 개인 중심으로 만들고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Skehill, 1999).



<그림 2> 구조화의 역동과 이원성(출처 - Burrige et al., 2010 :26)

아울러 임파워먼트의 내부에는 미시적인 개체주의적 접근과 거시적인 구조주의적 접근이 아무 중재나 매개 장치 없이 양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실제 실천에서는 개인의 무기력과 의존성에 대한 개입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박시중, 2001). 그리고 이러한 논리적 공허함으로 인한 현상들이 실제 한국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도 그대로

관찰된다는 조사연구도 보고되고 있다(양옥경·최명민, 2006).

이에 비해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에서는 개인주체와 사회구조의 관계를 엄격하게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그림 2〉 참조). 대신 이들 간의 관계는 상호적이며 재귀적인(recursive) 것으로 이해하면서 사회구조가 위협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인간에게 군림하는 제약자가 될 수도 있지만, 목표로 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가능자이기도 하다고 본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미시수준의 사회적 실천은 거시적 결과를 가져오고 거시적 결과는 다시 미시수준의 사회적 실천의 조건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실천이 관행적으로 수행되어 구조로 생산되며 이렇게 생산된 구조는 다시 실천가의 수행을 조건화시켜 결국 수행이 재생산에 기여하게 만드는 이중적 특성을 갖는 것이 경험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조성우, 2006). 이렇듯 구조화이론은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관련성을 구성하는 내적 기제 또는 동학을 설명해준다는 유용성이 있다(이기홍 역, 2005). 즉 사회구조란 정태적 완결체가 아니라 사회적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투쟁하고 극복해야 하는 고정된 대상이라기보다는 역동적인 사회적 과정이다. 그리고 이는 개별주체들과 사회구조가 재귀적으로 상호 창조되는 현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에서도 개인-구조 간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서 상호 '관계'차원에서 새로운 임파워먼트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Wheeler-Brooks, 2009).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인간이 '성찰적 감시'기능을 통해 사회구조를 구성하며 그 과정에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자원'과 '규칙'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Giddens, 1984). 이와 같이 사회구조를 자원과 규칙이라는 실체로 구체화하고 이것이 다시 권력이 되어 인간의 의식과 행동으로 연결된다고 한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은 구조변화를 향한 임파워먼트 실천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가시적으로 제시해 준다(Giddens, 1984 : 377). 결국 기든스의 논리를 받아들여지면 임파워먼트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든스의 주장이 행위 주체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며 사회구조의 억압적 책임을 간과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도록 한다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다(Anderson, 1992: 212; Collins, 2009). 하지만 사회구조를 주로 억압적이고 막강한 외부세력으로만 강조하고, 인간을 외부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수동적 존재로만 규정하는 것이 사회과학 이론으로나 사회복지의 가치지향 면에서 과연 균형적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또한 실천적 측면에서도 구조주의적 입장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성찰과 변화를 모색하는 입장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 임파워먼트가 거시적 실천을 이념적으로 강조하더라도 실천현장에서는 때면 거대구조와 투쟁해야 한다는 사실에 압도되기 쉽고 그 실천방법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억압을 기존의 임파워먼트 논리에서처럼 피억압자와 외부 억압자의 이분 구조로 이해하기보다는 사회관계로 이해하고 그 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주장(Wheeler-Brooks, 2009)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성찰을 서로 공유하면서 공동의 성찰과 행동으로 형성해 가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Kondrat, 2002; Burrige et al., 2010).

다음에 제시되는 실천 사례는 이러한 기든스의 논리가 임파워먼트를 지향하는 사회복지 실천에 훌륭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례는 B복지관을 중심으로 진행된 지역복지사업

에 대한 사례집의 일부내용을 가능한 그대로 살려서 요약, 정리한 것이다.

지역주민조직화의 목적은 지역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이를 실현하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다. 해당 지역은 저소득 가정이 대부분으로 아이들은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오랜 시간 방치되거나 가정해체, 알코올중독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아이들은 영양부실, 좁고 지저분한 학교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경제적 박탈감, 애정결핍에 더해 폭력과 방임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그나마 시설의뢰나 방과후 교실 연계 같은 것이 있었지만 이는 광범위한 지역아동문제에 비한다면 매우 소극적인 대응이었다.

아동방임 문제를 사회복지사가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고민에서 지역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사랑모임이 시작되었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를 토대로 방임아동을 돌볼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되었다. 인적자원을 위해 '교육'방식을 고민하고 물적 자원을 위해 공동모금회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사업이 진행된 몇 년 후 이제는 주민이 중심이 된 회원들이 방과 후에 15명의 아이들과 함께 하며 텃밭을 가꾸고 숙제를 돌봐주고 간식을 만들어 주고 책을 읽고 있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구청, 동사무소, 구의원에게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호소했던 것도 회원들이었다. 아이사랑모임은 복지관 방과후 교실보다 규모는 작지만 주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며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다.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이 공부방은 중착점이 아니라 지역의 아동들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거쳐 가는 하나의 관문이다(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연구기획팀, 2007: 81-84).

이 사례에서 보듯 성찰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사들은 현실 문제(지역사회 아동의 열악한 상황 방치, 사회복지사 중심의 실천이 갖는 한계)를 자각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실천을 수행하며(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의식화, 지역주민 조직화) 이 과정에서 기존 자원(공동모금회, 관공서, 구의원 등)을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규칙(수혜자로서 지역주민이 아니라 참여하는 동반자이자 지역사회 문제해결자로서 지역주민의 자리매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생활규칙들)을 형성해 나간다. 이러한 성찰적 수행의 결과물인 새로운 구조(방과후 교실, 관련 지원기관 등)는 다시 사회복지사와 아동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삶을 구성하고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기관이나 정치인은 외부규제자나 통제자라기보다는 사업의 잠재적 지지자이자 도움제공자로 재구성되고 있다. 또한 개입의 초점이 되는 사회구조는 자원과 규칙으로 명료화되어 사회복지사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학습과 성찰, 지역주민의 의식화는 자원 활용 및 규칙 변화와 서로 분리된 활동이라기보다는 연계와 순환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임파워먼트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은 구조와 권력을 인간주체의 성찰적 기능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과 규칙이라는 개념적 실체로 제시하고, 억압의 존재와 억압의 극복을 모호하고 분리된 외부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주체와 구조가 재귀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변화될 수 있는 관계와 과정으로 규정함으로써, 진정한 임파워먼트를 위한 가시적 전략을 포괄하는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근대와 탈근대 논란 극복을 통한 사회복지실천의 방향 제시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이 성찰적 주체의 정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러한 성찰성을 요구하는 사회 환경과 근대 및 탈근대의 동시 극복을 통한 성찰성 작동의 조건 설정에는 성찰성 근대화론을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근대와 탈근대의 이원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성찰적 근대화론의 논리는 이러한 논쟁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사회복지실천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에서 근대성이 가지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실천이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할 때 클라이언트의 권한은 적절하게 존중되지 못하고 비민주적 관계 속에서 일방적 온정주의가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며 전통에만 집착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근대주의에 의해 과학과 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실천의 성과를 과도하게 중시하게 되면 도구적이고 기계적인 논리나 성과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기 쉽다(최명민, 2011; Lam et al., 2007).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몇 십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대인 서비스의 흐름은 유능성 중심의 실천(competence-based practice)과 과학주의(scientism)가 지배하면서 단순한 지식의 전달과 기술적 실천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Cliff et al., 1990). 한편 근대주의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또 다른 축인 구조주의나 비판적 실천은 기존의 사회구조를 억압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구조에 전면적으로 대항하지 않을 경우 진정한 임파워먼트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비판적 실천의 지침을 제시해 왔다(서진환 외 역, 2001; Stepney, 2006).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보편적 지식만으로 다양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거나, 전문가 개입에 의한 확실한 결과를 담보하거나, 또는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즉, 희망과 불안, 신뢰와 위험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의 특징은 사회복지실천 영역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기든스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선택할 때 성찰의 과정 없이 어떤 이론이나 지침에 대해 무조건적 신뢰를 보일 경우 이와 같은 신뢰는, 마치 전근대성을 상징하는 전통에 대해 완전무결하게 인식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처럼, 단순한 반복충동으로 전락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동결된 신뢰는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신을 지배하는 추상체계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다고 보았다(임현진·정일준 역, 1998 : 139).

이러한 근대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사회복지 일부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거론되어 왔다. 여기서는 기존의 공인된 기관이나 전문가의 권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이들이 가진 정통성과 권위의 해체를 통해 전통적인 전문적 관계를 부정하고 전문적 판단에 의한 개입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주체화를 강조하고 있다(김기덕 외, 2012). 또한 이들은 기존의 비판이론에 의한 해방적 실천 역시 권력에 대한 근대주의적 개념화에 근거함으로써 기존의 지배 구조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임파워먼트의 지향과는 반대의 효과를 가져 온다고 비판한다(Pease, 2002).

그러나 탈근대주의적 입장에서 전개되는 규범의 해체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복고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은 사회복지실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탈근대주의에서는 사실과 규범에 대한 인식적 구별을 하지 않으며 전문직 관계의 억압을 과도하게 철폐하는 과

정에서 도덕적 상대주의나 급진 자유주의로 흐르거나,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권력적 제휴나 연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실천의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김기덕, 2011).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 영역에서 서비스, 사회정의, 인간존중, 인간관계, 성실성, 능력 등의 기본 가치와 이에 근거한 윤리규범들의 필요성에 대해 일부라도 동의하는 한 완전한 의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의 사회복지 실천을 지향하기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대안은 한편으로는 전통에만 집착하는 전근대성의 한계와 더불어 진리에 대한 거대 담론의 보편성,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유지되고 유형화될 수 있는 자아의 동일성, 고정적이고 명확한 언어의 의미, 범주화에 따른 통일성 등이 강조되는 근대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대안 제시에 분열적 특성을 갖는 탈근대주의의 제한점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인류 보편의 기본적 가치에 근거한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를 존중하면서도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자세로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환경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기든스가 제시한 성찰적 자아, 친밀성, 생활 정치 등의 개념은 근대주의와 탈근대주의의 동시적 극복이라는 맥락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실천의 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기든스의 논리를 적용해 보면 클라이언트는 성찰적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원조전문가인 사회복지사 역시 자신의 실천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원조전문가와 원조를 받는 클라이언트 사이의 관계는 민주적이어야 하며 원조전문가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억압이 없는 민주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생활계획(life-planning)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 생활정치를 촉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김기덕 외, 2012 : 37-53). 그러므로 성찰적 근대화는 진정한 개성화의 길을 열어주며 자율적 주체성의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열어준다고 할 수 있다(이혁구, 1999). 이와 같이 구조화이론으로 정립된 성찰적 주체가 현실사회 속에서 성찰성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 사회 역시 성찰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성찰적 근대화 사회야말로 일반적인 근대의 억압성과 탈근대의 무정부성을 극복하며 성찰의 현실 토대를 구축하는 이론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실천의 방향은 자기결정권을 가진 개인존엄성의 가치, 상처 입기 쉽고 억압받는 사람 및 집단을 위해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정의의 가치, 사회복지사가 관계의 변화 매개체로 기능하며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는 인간관계 중요성의 가치,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성실과 능력의 가치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가치들(NASW, 2003)과 정확히 부합한다.

이러한 이론적 실천적 입장은 사회복지실천에서 임파워먼트가 지향하고 있는 성찰적 또는 반영적 실천(reflective practice)과 다르지 않다. 사실 그 동안 임파워먼트는 다양하고 불확실한 현실 조건과 이슈 속에서 마치 일관된 전략적 실천을 할 수 있는 양 언급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Skehill, 1999). 즉 임파워먼트가 견지하고 있는 보편성과 일반성도 근대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파워먼트에서도 반영과 성찰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성찰적 실천의 패러다임이야말로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나 기술적, 합리적 실천을 넘어 엄격한 비판적 평가와 검토를 촉진하고 클라이언트와 사회적 상황에 맞

는 관계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킴으로써 보다 비판적이고 의식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Sheppard, 1998).

그러나 임파워먼트에서 제시하는 성찰적 실천은 여전히 하나의 주장 차원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인 성찰의 기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문가의 성찰성을 형성하고 강화시키는가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 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복잡다단함을 고려할 때 단지 성찰 그 자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충분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어떤 성찰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와 같은 내용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담보하지 못하는 성찰은 실천의 맥락에서 볼 때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찰의 대상으로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칫하여 그 성찰이 자기애에 빠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주변 세상에 대한 민감성이 저하되고 타인과 차이에 대해 포용력이 감소될 수도 있다(Bleakley, 1999). 또한 충분한 이론적 기반 없이 성찰만을 강조할 때는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예컨대 실천가 개인의 성찰적 능력이 강조될 때 실천은 예술로 승화될 수 있으나 이 때 구조적 제약과 가능성을 제거하면 실천은 소박하고 비현실적인 개인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조성우, 2006).

원래 성찰적 실천은 실천 행동의 결과에 비추어 실천 전체를 반성하고 목표 및 방법을 다시 정립하여 나가는 엄격한 접근과 관련된 것으로서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에 기반을 둔 공학이나 법률과는 다른 사회복지실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최명민 역, 2007 : 65-66). 따라서 기존의 성찰적 실천 개념에 기든스의 성찰성의 논리가 더해질 때 실천가의 성찰적 수행은 개인과 구조라는 이중적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설명되며, 이들의 구조 또한 생산과 재생산의 과정에 참여하는 역동적이고 통합적인 기제로 보다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조성우, 2006; Giddens, 1991). 아울러 성찰은 언어와 문화 속에 투영된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를 해석하고 자신의 사고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해(thinking about thinking) 보는 과정으로 보다 더 구체화될 수도 있다(Bleakley, 1999). 결국 성찰적 비판에 의한 실천이 아니라면 임파워먼트는 수사적 용어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최명민 역, 2007 : 67) 이러한 비판적 반성과 성찰이 있는 실천이 수행될 때 진정한 임파워먼트 실천은 실현가능하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논의한 성찰성 이론과 임파워먼트의 논리적 접점을 보다 명료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여기서 보듯이 성찰성 이론과 임파워먼트는 규범적 정향, 주체, 수단, 과정, 결과의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매우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론과 실천 차원에서 상보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기든스의 성찰성 이론과 임파워먼트의 논리적 접점

	임파워먼트	성찰성 이론
규범적 정향	휴머니즘, 리얼리즘	비판적 휴머니즘, 유토피안 리얼리즘
주체	인간(개인 및 집단)	성찰적 개인, 성찰적 사회
수단	의식화, 반영(reflection)	성찰성(reflexivity), 성찰적 기획, 생활정치
과정	반영적 실천(reflective practice)	수행(performance)
결과	억압탈피, 의식고취, 참여	체계(자원과 규율)의 재구조화, 성찰성의 고양, 민주화

5. 결론과 전망

기든스의 성찰적 근대화론과 임파워먼트의 결합을 통해 구현하려는 통합적 사회복지실천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교육과 훈련 과정에서부터 사회복지사의 성찰적 실천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실천 교육과정에 성찰적 환경을 도입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이론과 기술을 규범적으로 적용하는 근대주의와 개인의 주체적 역량에 만 배타적으로 의존하는 탈근대주의를 극복하는 기제로서 성찰성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 분야의 교사교육 연구에 따르면(Burridge et al., 2010), 성찰적 환경이 주어질 때 학습자들은 개인의 다양한 의식과 의미구조를 갖고 구조적 학습상황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성찰과 토론을 통해 '의미구조를 공유하고 담론지식의 경계를 확장함으로써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그림 2〉 참조). 또한 사회복지실습교육 사례연구에서도(Lam et al., 2007) 성찰은 특히 갈등 상황에서 요구되며, 지식과 실천 간 관계에 대한 비판적 탐색을 위해서는 성찰적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물론 여기서 충분한 지식은 성찰의 전제조건이 된다. 국내에서도 성찰적 사고 수준이 깊을수록 사회복지실천기술 활용 정도가 증가하며(유영준, 2009a), 그 성찰적 사고를 성찰일지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정리하게 한 후 사회복지사의 성찰적 실천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유영준, 2009b). 반면 충분한 준비 없이 현장에 부딪혀 가며 배워 나가야 하는 초보사회복지사들은 '좌충우돌'의 현실에 좌절하거나 불만스러워 한다(이현주, 2012)

이와 같은 논의들을 정리해 보면, 사회복지교육에 사회복지사의 성찰성을 훈련하고 강화할 수 있는 공식적 기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이 때 성찰의 대상은 개인 및 사회구조와 이들 간 관계, 이론과 실제의 관련성, 자신의 사고 등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토론이나 성찰일지, 실습, 슈퍼비전과 같은 방법들이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단, 이를 통해 개인 주체의 성찰의 깊이를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들과 의미구조의 공유를 통해 공동의 성찰로 확대해가려는 시도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찰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는 그 경험을 토대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도 성찰적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인간에게는 주어진 성찰성 만큼의 자유가 있으며 바로 그 성찰성은 권력의 차이, 지식의 한계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Kondrat, 1999). 그러므로 권력과 지식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박탈된 위치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성찰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우선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며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신과 상황을 재해석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든스는 제도적 성찰성이 보급된다는 것은 전문적 이론, 개념, 그리고 발견사항이 일반인에게 되돌려지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를 통해 무비판적으로 강박충동적이었던 이전 행동유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전문적 지식의 재전유

는 일상생활의 신실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임현진·정일준 역, 1998 : 139).

이와 같이 성찰하는 인간주체로서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도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와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믿음과, 의식화를 통해 소외 집단과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을 가지며 자신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수행함으로써 임파워먼트를 성취해 갈 것이라는 낙관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성찰적 사회복지실천은 해방정치와 생활정치의 결합이자 비판적 구조주의와 개인주체의 낙관성이 적절히 결합된 기든스의 유토피안 현실주의가 발현되는 실례(實例)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기든스의 성찰성 이론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현실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의 가치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주체-사회구조, 미시-거시를 아우르는 패러다임을 정교하게 구성해 가려는 통합적 사회복지실천의 노력에도 힘을 실어준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단, 혹자는 기든스 이론과 사회복지실천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 잡은 인간 주체와 사회변화에 대한 낙관주의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회구조가 현저하게 왜곡되어 있거나 체계적 억압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성찰성의 발현과 그에 기반을 둔 변화노력도 그만큼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궁극적 낙관성이야말로 사회복지실천이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의 이유이자 지향이라는 점에서 기든스의 성찰성 이론과 임파워먼트의 만남은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시도된 기든스 이론과 임파워먼트의 결합이 다양한 사례와 조사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보완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김기덕, 2011, “문화적 역량 비판 담론에 관한 사회철학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3(3): 239-260.
- 김기덕·최명민·이현정·조성우 역, 2012, 『사회복지학의 새로운 접근 : 철학적 토대와 대안적 연구방법』, Gray, M., and Webb, S. A., 2009, Social Work Theories and Methods,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상준, 2005, “성찰성 이론의 계보학”, 『한국 사회학회 전기 사회학 대회 논문집』, 충남대학교, 2005. 6. 17.
- 김윤태, 2006, “앤서니 기든스의 정치사회학”, 『사회와 이론』, 8: 25-41.
- _____, 2007, “통합적 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앤서니 기든스의 사회이론”, 『사회와 이론』, 11: 49-81.
- 김인숙·우국희, 2002,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임파워먼트의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에서 임파워먼트 실천은 가능한가?”, 『한국사회복지학』, 49 : 34-61.
- 김호기, 2001, “앤서니 기든스 : 후기 현대성과 제3의 길”, 김호기 편, 『현대 비판사회이론의 흐름』, 경기도 파주: 한울, 97-124.
- 김혜란·좌현숙·차유림·문영주·김보미 역, 2006, 『사회복지실천과 역량강화』, Gutierrez, L., Parsons, R., and Cox, O. E., 1998, Empowerment in Social Work Practice, 서울: 나눔의 집.
- 박시중, 2001, “사회복지실천에서 권력주체화 이론의 방법론적 통합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7: 89-112.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연구기획팀, 2007, 『신명나는 지역복지 만들기』, 서울 : 인간과 복지.
- 서진환·이선혜·정수경 역, 2001, 『현대사회복지실천이론』, Payne, M., 1997, *Modern Social Work Theory*. 경기도 파주: 나눔출판.
- 손성철, 2002, “탈전통적 개인주의와 자아실현의 전망 : 마르크스, 테일러, 기든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철학』, 70: 203-228.
- 양옥경·김미옥, 1999,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권한부여 모델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 겨울호: 155-172.
- 양옥경·최명민, 2006, “한국사회복지에서 임파워먼트 접근의 현황 및 과제”, 『한국사회복지교육』, 2(2): 39-84.
- 양옥경·김정진·서미경·김미옥·김소희, 2010, 『사회복지실천론』, 경기도 파주: 나눔출판.
- 오경석, 2004, “성찰적 근대화론에 관한 비판적 조망”, 『동향과 전망』, 61: 143-175.
- 유영준, 2009a, “사회복지사의 반성적 사고수준과 사회복지실천기술의 활용정도”, 『사회복지연구』, 40(3): 337-362.
- 유영준, 2009b, “사회복지사의 반성적 실천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사회복지연구』, 40(4): 515-540.
- 이기홍 역, 2005, 『새로운 사회과학 방법론: 비판적 실재론의 접근』, Danermark, B., Ekström, M., and Karisson, J., 1997, *Explaining Society : Critical Realism in the Social Science*.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이혁구, 1999, “탈근대사회의 가족변화와 가족윤리: 21세기 가족복지의 실천방향”, 『한국가족사회복지학』, 4: 219-242.
- 이현주, 2012,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전문직 정체성을 찾아가는가?”,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운택, 2006, “성찰적 근대화: 사회학적 시대 진단의 잠재력과 한계”, 『사회이론』, 29: 364-416
- 임현진·정일준 역, 1998, 『성찰적 근대화』, Giddens, A., Beck, U., and Lash, S., 1994. *Reflexive Modernization*. 경기도 파주: 한울.
- 정순돌·김경미·박선영·박형원·최혜지·이현아, 2007, 『사회복지와 임파워먼트』, 서울: 학지사.
- 조성우, 2006, “사회복지 실천가의 수행에 관한 연구 : Giddens의 구조화이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명민 역, 2007, 『임파워먼트와 사회복지실천』, Adams, R., 2003, *Social Work and Empowerment*. 경기도 파주, 나눔출판.
- 최명민, 2011, “사회복지실천을 둘러싼 전문가-이용자 관계의 전근대적 측면과 대안적 실천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회 2011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전북대학교, 2011. 10. 28 발표.
- 하상복, 2006, 『부르디외 & 기든스: 세계화의 두 얼굴』, 서울 : 김영사.
- 황보람, 2009, “사회서비스정책의 윤리정치성 진단범주에 관한 시론적 연구: 성찰적 근대성 이론과 사회공간 이론의 관점”,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1): 63-89.
- Adams, R., 2008, *Empowerment, Participation and Social Work*, Hampshire, UK: Palgrave Macmillan.
- Anderson, P., 1992, *English Questions*, London: Verso.
- Askheim, O., 2003, “Empowerment as guidance for professional social work: an act of balancing on a slack rope”, *European Journal of Social Work*, 6(3): 229-240.
- Atherton, C., and Kathleen, B., 2002., “Postmodernism: A dangerous illusion for social work”, *International Social Work*, 45(4): 421-433.
- Baistow, K., 1995, “Liberation and regulation? Some paradoxes of empowerment”, *Critical Social*

- Policy*, 42: 34-46.
- Bleakley, A., 1999, "From reflective practice to holistic reflexivity", *Studies of Higher Education*, 24(3): 315-330.
- Brooks, A., 2008, "Reconceptualizing reflexivity and dissonance in professional and personal domain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9(3): 539-559.
- Bryant, C., and Jary, D., 1991, *Giddens' Theory of Structuration*, New York : Routledge.
- Burridge, p., Carpenter, C., Cherednicken, B., and Kruger, T., 2010, "Investigating praxis inquiry within teacher education using Giddens' Structuration Theory", *Journal of Experiential Education*, 33(9): 19-37.
- Clift, R., Houston, W., and Pugach, M., 1990, *Encouraging Reflective Practice in Education : An Analysis of Issues and Programs*,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 Collins, S., 2009, "Some critical perspectives on social work and collectives",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9: 334-352.
- Ferguson, H., 2004, *Protecting Children in Time: Child abuse, Child Protection and Consequences of Modernity*, Hampshire, UK: Palgrave Macmillan.
- Fook, J., 2004. "What professionals need from research: Beyond evidence-based practice", 29-46, in *Social Work and Evidence-based Practice*. edited by Smith, D., Philadelphia : Jessica Kingsley Publisher.
- Freire, P., 1996, *Pedagogy of the Oppressed*, Harmondsworth: Penguin.
- Garrett, P., 2003, "The trouble with Harry: A rejoinder in the 'life politics' debate",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3(3): 381-397.
- Gibelman, M., 1999, "The search for identity : Defining social work: past, present, future", *Social Work*, 44: 298-310.
- Giddens, A., 1979, *Central Problems in Social Theory: Action, Structure and Contradiction in Social Analysi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iddens, A., 1981,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Vol.1*. Hampshire, UK : Palgrave Macmillan.
-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ory of Structuration*.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Cambridge, UK: Polity.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 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Cambridge, UK: Polity.
- Giddens, A., 1994, *Beyond Left and Right: The Future of Radical Politics*, Cambridge, UK: Polity.
- Gray, M., 2008, "Viewing spirituality in social work through the lens of contemporary social theory",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8(1): 175-196.
- Guba, E., 1990, *The Paradigm Dialogue*. CA: Sage Publication.
- Haynes, K., 1998, "The one hundred-year debate: social reform versus individual treatment", *Social Work*, 43: 501-509.
- Hugman, R., 2003, "Professional values and ethics in social work: Reconsidering postmodernism",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3: 1025-1041.

- Kondrat, M., 1999, "Who is the self in self-aware: Professional self-awareness from a critical theory perspective", *Social Service Review*, 66: 237-255.
- Kondrat, M., 2002, "Actor-centered social work: Re-visioning 'person in environment' through a critical theory lens", *Social Work*, 47(4): 435-448.
- Lam, C., Wong, H., and Leun, T., 2007, "An unfinished reflexive journey: Social work students' reflection on their placement experiences",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7: 91-105.
- Mestrovic, S., 1998, *Anthony Giddens: The Last Modernist*, Routledge.
- Miri, S., 2009, *Giddens and Structuration Theory: Conditions of Human Existence in the Matrix of Modernity*, 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 NASW, 2003, *NASW Code of Ethics*, Author.
- Pease, B., 2002, "Rethinking empowerment: a postmodern reappraisal for emancipatory practice",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2: 135-147.
- Pease, B., 2003, "Rethin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 and society", 187-201, in *Critical Social Work: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Practices*, edited by Allan, J., Pease, A., and Briskman, R., St Leonards: Allen & Unwin.
- Pozatek, E., 1994, "The Problem of certainty: Clinical social work in the postmodern era", *Social Work*, 39(4): 19-35.
- Sheppard, M., 1998, "Practice validity, reflexivity and knowledge for social work",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8: 763-781.
- Skehill, C., 1999, "Reflexive modernity and social work in Ireland: A response to Powell",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9: 797-809.
- Specht, H., and Courtney, M., 1994, *Unfaithful Angels: How Social Work Had Abandoned Its Mission*. New York: Free press.
- Stepney, P., 2006, "Mission impossible? Critical practice in social work",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6: 1289-1307.
- Taylor, C., and White, S., 2000, *Practicing Reflexivity in Health and welfare: Making Knowledge*, Berkshire, UK: Open University Press.
- Wakefield, J. C., 1996a, "Does social work need the eco-systems perspective? Part 1. Is the perspective clinically useful?", *Social Service Review*, 70(1): 1-32.
- Wakefield, J. C., 1996b., "Does social work need the eco-systems perspective? Part 2. Doe the perspective save social work from incoherence?", *Social Service Review*, 70(2): 183-213.
- Webb, S., 2006, *Social Work in a Risk Society*, Hampshire, UK : Palgrave Macmillan.
- Wheeler-Brooks, J., 2009, "Structuration theory and critical consciousness: Potential ap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36(1): 123-140.

**Reappraisal of Empowerment
through Giddens's Theory of Reflexivity**
-In Quest of the Integrated Paradigm for Social Welfare Practice-

Choi, Myungmin
(Baekseok University)

Kim, Giduk
(Soonchunhyang University)

Although both ecosystem theory and empowerment have become the most prevalent candidate for integrated paradigm for social welfare practices, they could not overcome completely the long-standing and sharp divides between micro and macro practices, that is, between subject and structure as a main explanatory element in social welfare realm. Along with such traditional dualism and tension, a new emerging divide between modernism and postmodernism regarding intrinsic mission and roles of social welfare has urged strongly to develop the overarching theoretical framework for social welfare practice.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recast the ecosystem theory and empowerment through the reflexive modernization theory of critical sociologist Anthony Giddens. With relatively strong emphasis on human capability coined as the reflexivity, Giddens's own creative theory of modernization can be thoroughly expected to provide a solid foundation of integrated paradigm enough to bridge the existing dualisms in social welfare theory and practice.

Especially, his unique account of integrated way of how human agency is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of social structure and how to transform each other recursively has profound implication for empowerment to be adequate and proper comprehensive framework for social welfare practice.

Key words: Giddens, Structuration theory, Eco-system, Empowerment, Theory of Reflexivity

[논문 접수일 : 13. 02. 12, 심사일 : 13. 03. 04, 게재 확정일 : 13. 04. 20]